

아주사 대부흥...다시 한 번 더

2016년은 아주사 대부흥 110주년
 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4월 9일(토)
 LA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오전 7시 30분부터 40분간
 한인 인도 특별순서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06년 아주사 대부흥이 110년이 지난 2016년, 다시 한 번 대부흥을 갈망하는 중보기도자 수만 명이 오는 4월 9일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에서 대형 기도집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더 콜(The Call) 측은 한인교회들이 이 집회

에 초청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40분간 한인들이 인도하는 특별 순서로 배정했다.
 더 콜은 지난 2000년 워싱턴 DC에서 수천 명 청년의 금식기도 운동을 시작한 이래 15년간 지속해서 수만 명 규모의 중보기도 집회를 열어왔다.
 이 단체 대표 루 잉글 목사는 1980년대부터 체 안 목사(Harvest Rock Church)와 함께 사역

하면서 미국의 청년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에 올인해 왔다.
 이 단체는 아주사 대부흥이 110주년을 맞이한 2016년, 당시의 부흥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뜻에서 '아주사 나우(Azusa Now)'란 연합중보기도회를 기획했다.
 이 행사는 오전 7시부터 시작돼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다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대규모 전도집

회 및 치유집회로 연결된다. 실제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집회라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 중 행사의 첫 시간을 한인들에게 맡기며 한인들이 전체 행사를 이끌어달라 부탁했다.
 지난달 29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가한 루 잉글 목사는 한인교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추일학교 학생수 많아지는 7가지 이유

1. 일주일 중 가장 신나는 시간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2. 주제의 핵심 이해시키기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한 주제 선별이 중요하다.
3. 구체적인 물건 통한 핵심 설명
 아이들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컵 두 개를 보여 주면서 말한다. "하나는 식초고 다른 하나는 물이 예요"
4. 매주 새로운 시도하기
 매주 다양한 대화와 성경 퀴즈 게임을 준비하고 상을 준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5. 동일한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주제와 상관없이 똑같은 때가 많다.
6. 하나님 사랑에 중점두기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둔다.
7. 종교 외의 것도 다루기
 글쓰기와 일기, 시화성 지도 등 종교 이외의 것도 가르친다.

“남가주 한인교회 세계 선교에 큰 도전 줄 것”

한인세계선교대회... 제8차 KWMC 선교대회 앞두고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제8차 KWMC 대회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이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전 세계 한인선교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가 30년 만에 그 행사 장소를 시카고에서 LA로 옮겨 열린다.
 4년마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가 개최하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항상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개최지를 서부인 LA로 옮기게 됐다.
 매년 7월에 열린던 일정도 6월 초로 앞당겨진 상황이다.
 이 행사를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뉴욕 본부의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가 LA를 방문해 이 행사를 소개하고 남가주 한인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기

사회견에서 고 목사는 "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행사 장소를 중서부에서 서부로 옮기게 됐다. 익숙한 시카고를 떠나 미담의 황무지와 같은 서부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모험과 같다. 그러나 그 동안 행사를 열던 휘튼대학교보다 최대 수용 인원 및 숙박 시설 등 여러 가지 조건은 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행사에는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강사들이 전체 집회와 각종 선택 강의 등을 이끌게 된다"면서 "선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참석을 권했다.
 이 대회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도 교회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주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강사 강명옥 전도사, 박주성 목사, 김홍장 전도사

일시 2016년 4월 18일(월) - 4월 23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상 현 이민 교회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담임목사 참가시 부교역자도 참석 가능)

등록서류 신청서, 주보, 사진 1매
 등록마감 2016년 3월 21일(월)
 등록비 \$390(숙식 및 강의안 포함)
 등록처 국제제자훈련원(T.714 635 3000)



이날 참석한 WEA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해 기도해 달라”

WEA세계지도자대회 ... 2월 29일~3월 5일, 서울서 열려

세계복음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지도자대회(International Leadership Forum 2016·이하 ILF) 개최예배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WEA 대표단과 대한민국 교계 및 각계 지도자들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WEA가 주최하고 WEA세계지도자 한국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WEA ILF는,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Partners in the Gospel(복음 안에서의 동역, 빌 1:4-6): Build His Church'라는 주제 아래 3월 5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전 세계 WEA 관련 지도자 120여 명(국제이사 7명 포함)이 참석하는 ILF는, 매년 한 차례 모여 사업 경과 보고 및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된다.

특히 '지상대사명'(Great Commission)의 완수와 긴급한 해결이

요청되는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이미 진행된 2월 27-28일 사전회의와 이날 개최예배 및 환영만찬 이후, 3월 4일까지 분과별 전략회의가 진행된다. 3월 2일 판문점(DMZ) 견학, 3일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4일 폐회 오찬 등의 일정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지도자대회 결과물을 문서로 채택·발표한다.

이강평 목사(WEA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환영사, 유영식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가 대표기도, 이경숙 회장(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이 성경봉독 후 김장환 목사(국동방송 회장)가 '복음의 능력(마 28:18-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牧사는 "WEA ILF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참석한 지도자 여러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

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대회를 통해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되길 희망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길 바란다. 한국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해 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세계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WEA에서는 총무 에프라임 텐데로 감독(Efraim Tendero)과 국제이사회 의장 엔다바 마자바니 목사(Ndaba Mazabane), AEA 사무총장 리처드 하웰 박사(Richard Howell) 등이 감사를 전했다.

이대용 기자

“아주사 대부흥 다시 한 번 더”

Azusa Now 다민족 연합기도회 통해 ... 플러드LA 전도 집중할 것

[1면으로부터 계속] 루 잉글 목사는 “금식과 기도로 부흥한 한인들을 보면 질투를 느낄 만큼 부럽다”면서 “미국에서의 부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금식과 새벽기도의 은사를 가진 한인들이 그 은사를 사용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1월 20일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다민족 교계 지도자 520명과 함께 행사를 소개받고 긴급하게 한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당시 이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 40여 명은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희민 목사를 명예대회장, 신승훈 목사를 대표대회장, 진유철 목사를 상임대회장, 김영길 목사, 박성규 목사, 민승기 목사, 엄규서 목사 등을 대회장으로 준비위를 구성했다.

박희민 명예대회장은 “2004년 빌리그래함 LA 전도대회 때부터 지난 11.11.11 로즈볼 다민족 기도회 등 한인들의 기도 열정이 주류사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번에도 다민족 중심 기도회에 한인들이 초청받았다”고 설명했으며 이성우 준비위원장은 “이 행사에서는 한인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30분간 6명의 목회자가 나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도 시간에 아주사 대부흥 110주년을 기념하며 한인교회 지도자 110명이 단상에 나와 중보기도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모리얼 콜리세움의 공식 수용 좌석은 9만3천여 석이지만 주최 측은 최대 수용인원을 12만 명으로 잡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까지 3만8천 명이 참가 신청을 한 상태다. 한인 준비위에 따르면, 한인들은 새벽기도회를 각자의 교회에서 간단히 마친 후, 교회 버스나 카풀로 이동해 이 행

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인 준비위는 3월부터 교회들에 한글과 영어로 된 포스터와 전단을 배부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한인들이 또 다시 초청받은 것과 그 중에도 행사의 시작 부분을 맡게 된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이 행사의 중요한 초점은 전도에 있다. 더 풀은 오는 4월 9일 기도회 행사 가운데 오후 4시부터를 전도집회 형식으로 기획해 놓았다. 그리고 부활주일 다음날인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플러드 LA(Flood LA)라는 총력 전도 활동을 도시 곳곳에서 펼친다. 이때 전도된 이들을 아주사 나무에 초대해 결신케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행사를 알리는 설명회에는 정시우 명예회장, 이주철 총무 등 남가주교협 관계자들, 민승기 회장, 신현철 총무 등 OC교협 관계자들, 최문환 장로, 김인화 간사 등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측 인사들, 박종술 간사, 이기송 간사 등 KCCC 인사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 청년부 흥운동 HYM의 더글라스 김 대표, 남가주한인목사회 전 회장 정종윤 목사, 라인인더센드 다민족 기도회 한인 코디네이터 출신의 전두승 목사, KCCD의 임혜빈 대표, 팜스프링스한인교회 최승목 목사 등 50여 명의 한인 지도자가 참석했다.

진유철 상임대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역사를 변화시킨 평양 대부흥이나 아주사 대부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고자 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OC한인들 3·1절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 개최”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들이 3·1절을 맞아 평화통일 염원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OC교협과 민주평통OC-SD 지부가 주최하고 OC목사회, OC원로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OC한인회가 후원하는 등 이 지역 교계, 사회 단체가 연합한 가운데 진행됐다.

1일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는 예배와 국민의례, 특별기도회로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OC교협 이사장 민경엽 목사가 “죽으면 죽으리라(에 4:10-17)”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민 목사는 “우리 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 위에서 있다”면서 “3·1절을 맞이해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 다니엘, 에스겔처럼 다른 이들의 갈함을 해소해 주는 사람, 한나처럼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사람이 되자”고 도전했다.



1일 오후 은혜한인교회에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3·1절 기념예배가 열렸다.

국민의례 시간에서는 미국 국가와 애국가, 3·1절 노래 등을 살뜰여성합창단의 인도로 함께 부르고 권석대 민주평통 회장, 민승기 OC교협회장이 인사말을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탈북민의 안전과 북

한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영적 도덕적 회복을 위해, 차세대 정체성 회복과 신앙계승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모든 참석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부산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 청빙 가결”



유진소 목사.

부산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호산나교회가 지난 달 28일 공동의회를 열고 새 담임 유진소 목사(ANC 온누리교회) 청빙을 가결했다. 유 목사는 연세대 철학과와 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서울 온누리교회 부교역자, 두란노서원 원목과 사역팀 담당 등으로 사역했다. 호산나교회는 지난 2011년 최홍준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홍민기 목사가 부임했다. 그러나 홍 목사는 개인사정으로 지난해 사임했다.

SAS 인가컨설팅 비영리단체, 선교회, 연구소, 종교특례 대학 및 일반대학 설립인가 미 전역 종합서비스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201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집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 3:13)

일시 2016년 3월 21일~3월 25(금)
시간 오전 5:00~6:00

예수의 마음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www.cmc-12.com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 받드시 누리라”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 세미나 열려



이영환 목사 초청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 세미나가 열렸다.

장자권 회복 운동을 펼치는 이영환 목사(대전 한밭제일교회 담임)가 지난달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애너하임에 위치한 UBM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자권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 세미나를 인도했다.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 동부와 시카고 등에서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하며 많은 호응을 보였다.

이영환牧사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 의식에 빠져 “시골에서 30명만 목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교회가 크게 성장한 이유를 “오직 말

씀목회, 기도목회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장자권은 장자의 권세를 말한다”며 요한복음 1장 12절을 들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된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잊고 산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곧 장자”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만약 자녀가 맞다면,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2일 저녁 세미나에서 아

베스의 기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 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들으셨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를 사용해 달라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야베스의 기도처럼 감사와 회개, 명령과 선포, 결단의 기도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이 세미나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비영리 단체 설립 및 면세·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 안내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 세금 보고 관련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 은혜 한인교회 캠퍼스 내 Grace Library 의 GL2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이 있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 비영리 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영리 단체는 매년 5월 15일까지 IRS Form 990 이라는 Federal 세금 보고와 CA Form 199 이라는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 단체를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분들에게 세금 보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알려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로 IRS에 의하면 3년 이상 보고 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 단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번 무료 강의를 하는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강의 일정은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1차는 3월 11일, 2차는 4월 1일이다. 1차는 설립과 면세신청 및 혜택 위주로 강의가 되며 2차는 비영리 운영 및 회계, 세금 보고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 주요 강의 내용

1. 비영리 단체의 의미와 혜택
2. 비영리 단체의 종류
3. 비영리 단체의 설립절차
4. IRS 및 California State 면세 신청
5. USPS 비영리우편요금 신청
6. 도네이션 및 후원자 관리
7. 홈페이지 및 E-mail 지원
8. 비영리 단체 회계 관리 및 연간 세금 보고
9. 비영리 단체 운영과 변경
10. 질문과 응답

◆ 시간 및 장소

1. 일정: 1차-3월 11일(금) 2차-4월 1일(금)
2. 시간: 오후 1시30 - 3시
3. 강사: 제임스 구 교수
4. 장소: Grace Library GL2 강의실
5. 주소: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은혜한인교회 내)
6. 문의: 714-393-4595(센터) 714-515-5431(도서관)

“남가주 한인교회 세계 선교에 큰 도전 줄 것”

한인세계선교대회... 제8차 KWMC선교대회 앞두고 준비상황 보고회 가져

[1면으로부터 계속]한기홍 목사는 “4300여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1300여 교회가 남가주에 위치해 있어 이미 세계 선교계에서 서부 지역 한인교회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교회의 세계 선교에 불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회복이란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선교의 회복이다. 교회에 선교의 불이 붙게 되면 한인교회와 미국교회까지 살게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한 목사는 “선교사들에겐 재충전의 기회, 목회자들에게 지역 교회의 선교 사명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서부 지역 한인교회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앙의장 이승종 목사는 “환태평양 시대에 미주 서부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는 것은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에 1200-1500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목회자나 평신도는 약 4천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최 측은 또 이번 대회에서 이번 대회에 남가주 한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거 참석해 선교에 도전받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로랜 커닝햄 목사(YWAM 총재), 오대원 목사(안디옥 커넥션 대표), 폴 애실만 박사(CRU 대표), 마이클 오 박사(국제로잔운동 총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인 중에도 한기홍 목사(은혜한

인교회),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호성기 목사(필라안디옥교회),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등이 강의를 맡는다. 또 200여 개의 선택강좌와 선교포럼에서 선교 전문가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열린다. 어린이 선교대회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 이 대회에 앞서서는 6월 3일(금)부터 6일(월)까지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와 한인선교사자녀대회가 열린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kwm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한인기독교 상담소 'Happy Together' 세미나

월드미션대학 부설 한인기독교 상담소에서는 3월 8일(화)부터 4주간에 걸쳐서 “Happy Together”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노나 우울한 감정들이 생겨나는 진짜 이유들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다루게 된다. 건강한 감정표

현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 대상이다.

- 주제: Happy Together
- 일정: 3월 8일, 15일, 22일, 29일
- 시간: 오전 10시 30-12시 30분
- 등록비: 10불
- 장소: 한인기독교 상담소 509호
- 주소: 500 Shatto Pl #600 LA, CA 90020
- 문의: 213-738-6930

기독일보

편집국: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고문번호사: 정찬용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Welcome to a better world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 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6/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Simitri bizhub Marketplace

3·1절 기념 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

제97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예배와 음악회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지난달 2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음악회 수익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한인 커플들의 단체 결혼식인 '사랑의 결혼식'을 후원하는 데에 사용된다. 목사회는 오는 5월 28일(토) 중앙루터교회에서 이 결혼식을 거행할 계획이다.

염규서 목사회장은 "목사회는 지난 49년 동안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 왔다"면서 "선조들의 민족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이날을 기리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지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이 사랑의 결혼식 후원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염 목사회장은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한인들의

생활이 안정돼 건전한 사회 풍토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악회에 앞서서 드린 3·1절 기념 예배에서는 염 목사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시 150: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념식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미국국가와 애국가를 부른 후, 미주 3·1여성동지회 홍순옥 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을 불렀다.

음악회에서는 영앤젤스콰이어, 에버그린여성합창단, 목사회로부부합창단, LA크리스천싱어즈, 한아름찬양을동팀, LAN남성선교합창단, 한아름합창단, 소프라노 최정원, 율게니스트 이해경, 클라리네티스트 백철, 테너 오위영 등이 연주했다.



2월 27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3·1절 기념예배 및 사랑의 결혼식 후원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이 독립 정신을 기리며 만세삼창하고 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97주년 3·1절 기념 행사”

라흥채 목사 초청 세미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라흥채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라흥채 목사 초청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가 1일-2일 양일간 한미장로교

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라 목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 도표로 정리해서 목회자들에게 전달했고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온 종말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가야만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제 우리 앞에는 수많은 환란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목적지를 알 때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다”며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길 요청했다.

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인 라 목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1996년 뉴욕제자들과교회를 설립해 현재까지 목회하고 있으며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성자 사모.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 다양한 책을 저술했다. 특히 뉴욕, 달라스,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과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성자 사모 초청 영성 세미나

사모도 목회자다

한인 이민교회 사모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일-2일까지 양일간 이성자 사모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사모도 목회자다”란 주제로 세계야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의 대표적 부흥사 중 한 명인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의 아내인 이 사모는 이번 기간 동안 사모들에게 목회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요청했다.

이성자 사모는 “사모는 목회자가 아니지만 목회자적인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목회자에 버금가는 삶의 자세가 당연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 사모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인용해 목회의 진정한 의미를 조명하고 목회자와 사모에게

요구되는 목양의 자세를 설명했다. 특히 사모에게는 순종의 미덕, 사랑의 역사, 기도의 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누가 바울의 목회를 돕기 위해 의사직을 포기했다”면서 “사모도 누가처럼 남편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데에 헌신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돕는 배필, 순종의 모범, 기도 우선의 모범이 되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신문고(申聞鼓),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모는 인천교대, 총신대 신대원, 연세대 연신원 등에서 공부했고 인디애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 평화의동산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내외에서 사모 세미나로 사모들을 격려하고 있다.



라흥채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열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염규서 회장(좌)이 라흥채 목사(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요한복음 19:26-30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동정 탄생하셨습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시기로 구약에서부터 작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상철언

1. 로마 군병들의 구원을 위한 간구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추궁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사형 집행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원한이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2. 회개한 강도의 구원 선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십자가에서 구원해 달라!'며 빈정댔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질책했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벌을 받아 죽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만, 우리 가운데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눅 23:43)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피 흘리며 죽어 가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심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래를 바라보니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옆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시고, 육신의 아들로서 못한 효도를 다하기 위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본문 26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제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한은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어서 생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 대신에 아들로 생각하여 요한의 효도를 받으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시간부터 마리아를 어머니로 여겨 지극 정성으로 아들 된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묵회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면서 효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고 지옥 길을 고집하는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최상의 효도입니다.

4.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셨습니다. "제 구 시 즘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는 뜻이라"(마 27:46)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불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불평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말씀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통은 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회개하고,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 신 포도주를 거절하심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해웅이라는 스펀지와 비슷한 것을 막대기 끝에 달고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를 몰약 탄 신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고 가시기 위해 마취제마저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마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하나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기회 앞에 자신의 환경과 여건만 생각하며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신앙의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는 본문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자,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 받을 수 있게 하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회개

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들어가게 됩니다.

7.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심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모델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소망을 가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상철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택한 백성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유익이 되는 말과 행동만 하셨습니다. 이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만 충성 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 한 국 선 교 설 교 | | | |
|---------------|-------------------------------|--------------|-------------------------------------|
| TV 한국방송 설교 | | 한국 신문 설교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경복 기독교 신문 | 3면 설교 |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기도원 연합신문 | 3면 설교 |
| 해 외 선 교 설 교 | | | |
| TV 미국방송 설교 | |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 CTS TV |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시카고 기독교방송 |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
|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LA 미주 복음방송 |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
| 기독일보 | 5면 설교 | 오프라인 칼럼 설교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 | 인터넷신문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희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파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Tel. (213)276-8959(찰리 정)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 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김 인 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한국교회 일치 운동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은 처음부터 앞으로 한국에 개신교회는 하나의 교회, 즉 교파 구별 없이 단일한 교회를 설립한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 단순히 꿈만 꾸지 않았고 그 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경주했다. 언더우드(Underwood)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브라운(Arthur Brown)에게 한국에서 단일교회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써 보낸 일이 있다. "한국에서 '연합교회'(Union Church for Korea)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장로교인들은 하나의 교회 설립을 위해 모두 연합해야 한다."

여러 선교회가 연합하여 구성된 개신교복음주의선교협의회가 계획한 일들이 많았다. 그 중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한국에 하나의 복음주의 교회'(to have but one evangelical Church in Korea)였다. 이 협의회는 단일교회 구성을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노력하던 중, 1904년에 하나의 결정을 했다. "때가 오면 한국에 하나의 개신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 본 회의 결의다. 이 교회 이름은 '대한예수교회'다. 연합은 찬송가와 교회 신문 등을 출판하며, 가을에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이 모인다. 이 계획들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사업과 의료사업 그리고 복음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연합 정신은 1905년 서울에서 모인 선교사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열정적으로 표했고, 동년 8월에 서울에서 모인 같은 모임에서도 '하나의 연합교회'(One Union Church)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표출됐다.

1905년 이 일을 줄기차게 주도했던, "초교파주의의 열렬한 추종자" 언더우드는 그 목표에 대한 열의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나는 유능하고 잘 훈련된,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적인 토착적인 목회, 분파적이지 않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에는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성공회 교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스구디아인도, 자유자나 매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구별이 없고 다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일 뿐인 교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한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큰 팔로, 한편으로는 중국에, 다른 한편으



김 인 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로는 일본에 그 세력을 펼쳐, 편견을 즐기고 상대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여 한국이 그 이웃들과 더불어 어 린양을 영원히 찬양하며, 왕 중 왕이 며 만주의 주님을 드높이는 기독교 국가의 거대한 원(圓)을 이루는 세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본다."

같은 해에 언더우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들은 [장·감] 신앙 선언이 다르고, 예배 의식도 다르고, [예배] 방법이 다르고, 교회 정치도 다르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한국의 복음화"다. 한 믿음과 소망, 한 아버지, 한 구주, 한 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한 가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한 연합된 기독교회를 한국에 건설함으로 그들의 일치된 신앙을 보여 줄 때가 곧 올 것이다."

개신교복음주의선교협의회가 해야 했던 일은 교육, 의료, 문서, 그리고 출판 업무가 다 포함돼 있었고, 이 일들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도 결국은 하나의 교회 설립을 위한 전초 작업이었고, 최종 목표는 한국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1905년에 하나의 교회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단일교회 설립 의지에 대해 장·감 두 교회는 같은 해에 "한국 민족교회의 설립의 때가 차면, 그 이름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로 명명(命名)하기로 결의했다." 또 두 교회는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여 연합이 이루어져, 어린 한국 교회가 기독교권을 이끌어 주님께서 일치를 위해 기도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하자고 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단일교회의 설립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 교회의 비협조 때문 이다.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남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연합교회 모색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음과 같은 반문을 제기했다. "교회 연합을 제안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한국 기독교의 정체(政體)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새 교회 신조는 무엇을 포함할 것이며, 이 나라 [미국]의 감리교와 장로교의 교리적 차이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하여 미국 남장로교회는 한국에서 연합교회 문제는 후일 논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한국 선교사들에게 공한을 띄웠다. 공한에, "후일에 여하히 타 교회와 연합하여 자유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가하나, 지금은 유안(留案)하는 것이 위호(爲好)"하다 기록했다.

1962년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조지 브라운(G.T.Brown)은 이 연합의 실패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지적인 바 있다. 첫째 이유는 [선교사들] 모국 교회들의 비우호적 태도였다. 특히 감리교회는 한국에 와서 장로교회와는 달리 남·북 감리교회가 각각 교회를 설립하여 감리교회 자체 내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둘째 이유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연합에 대한 열의 부족이다. 여러 장로교회 선교부들이 독립노회의 조직으로 인해 연합에 대한 기선(機先)을 잃었다.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에서 연합교회 문제를 논의했고, "이 문제는 1907년에 독립노회를 조직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1912년 장로교회가 총회를 구성한 후 협의회의 이름을 'General Council'에서 'Federal Council'로 바꾸었다. 또한 현장에도 더 이상 교회 연합(Church Union) 문제를 심각히 다루고 있지 않아, 결국 한국에서 단일교회 형성은 실패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의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남인도교회나 중국교회가 성공한 단일교회 형성이 한국에서 실패한 것은 뼈에 사무치는 한이 아닐 수 없다.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며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한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가 가듯이, 나무에 잎사귀가 맺히고 다시금 떨어지 한 해가 가듯이 지금 경험한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미래가 다시금 현재로 흘러오는 일상의 반복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부과하신 시간들을 통틀어서 카이로스라 한다. 이 카이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도 그 과거의 시간이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현재의 시간에 부여하신 생명의 역사가 과거에도 미치고 있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미치고 있다. 그 카이로스의 최정상에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이전의 모든 인간, 그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능력이 다.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역사의 의미가 풀리고, 시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이길 길이 없다. 살인과 폭력, 전쟁과 기근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뒤덮고 있다. 가장 잘 산다는 미국과 서방에는 테러와 차별, 동성연애와 세속주의가 판을 친다. 어느 곳 하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없고, 역 차별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이 시대가 패역하고 완악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순간이 생명의 능력을 부여받는 카이로스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살면서도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신빙전 시대의 격랑장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정치적인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실 때,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의미 있는 생명의 현장 곧 카이로스의 현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본별력 있는 자의 지혜가 아닐까.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이미 2천 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생명의 능력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늘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십자가는 과거의 흘러간 한 시간에 있지만, 결코 죽은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개입 속에서 그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2천 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분명히 확신한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 생명의 능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된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이다. A.D는 Anno Domini라는 라틴어의 약자로, in the year of our Lord(우리 주님의 시대에)라는 뜻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

AZUSA NOW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2016.4.9 SAT 7-9AM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역사적 Azusa Now 전 도시 총력전도 & 다민족 연합기도회에 초청합니다

▶ 일시: 2016년 4월 9일 토요일

“한인들의 연합된 기도가 미국의 새벽을 깨우며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7:00 am – 9:00 am (한인 인도 기도시간)

4:00 am – 10:00 pm (도시 총력 복음전도 초청 집회)

▶ 장소: LA 메모리얼 콜로세움 (USC 경기장)

3911 S. Figueroa St., Los Angeles, CA 90037

▶ 주최: The Call과 미국 주류 선교단체 연합 (대표 루 잉글 목사)

▶ 한인 주관: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박희민 목사, 신승훈 목사, 진유철 목사와 공동대표들),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각 교단, 각 지역교협 및 목사회, 기독단체들, 한인교회들

▶ 주관언론사 :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www.chtv1888.org)

“한인교회 총동원 부활절 도시 전도 실천의 날로
3월 27일 부활절 오후 2시부터 1,300개 남가주 한인교회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총력전도가 일어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를 위해 무료 부활주일 전도세트(Easter Bag)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교회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세요!

문의: **Azusa Now** 한인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성우 목사)
213-384-5232/213-598-5323, laholycity@yahoo.com

REGISTER AT **AZUSANOW2016.COM**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3·1운동의 정신 다시 새롭게 되살려야”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 드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제97주년 3·1절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28일 오후 5시 종교교회(담임 최이우 목사)에서 한국교회평화통일 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상대 목사의 인도로 먼저 열린 예배에서는 이경숙 권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장)가 대표기도를 하고, 이어 구자우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무)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영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진리와 자유”(요 8:31-32)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일제시대 한국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말하고, “그들이 몸

을 던져 한국 독립을 위해 헌신·희생했다”면서 “진리된 예수를 만나면 거짓과 타협치 않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바른길로 가게 된다”고 했다.

설교 후에는 소강석 목사(경기도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3·1운동의 바람, 다시 일으키자”며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참석자들은 합심기도(유만석)를 하면서 “3·1기독교운동 정신계승을 위해”(이혜훈) “나라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이호영) “동북아의 화해와 세계평화를 위해”(서길원) 기도했다.

2부 기념식은 최이우 목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실무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먼저 김삼환 목사(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대표

회장)가 인사말을 전했으며,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독립선언문’을 교독했으며, ‘3·1절 한국교회평화통일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또 참석자들은 함께 3·1절의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를 불렀으며, 전용재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한 후 김삼환 목사의 축도로 행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회개와 하나됨, 그 연장선상에서의 남북평화통일을 소망하고, 독립 통일의 초석이었던 독립교회와 같이 “평화통일 그 날까지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라 다짐했다.

박용국 기자

“나라위해 하나되어 기도하자”

원로목회자들 순교 현장서...3·1절 기념 특별기도회 개최

한국 기독교 원로목회자들이 3·1절을 기념해 순교 현장인 제암리교회(경기도 화성 소재)를 찾아 뜨겁게 기도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후원회(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제9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 및 순교자 기념 원로목회자 특별기도회’를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서 2월 29일 오전 11시 400여 명의 원로목회자들과 함께 진행했다.

이 단체 상임대표회장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총재 한은수 감독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빌 1: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의 최복규 경경회장이 대표기도했으며, 강만원 경경회장과 조석규 사무총장, 백승익 공동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무협의회 신언창 회장이 ‘나라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북핵 포기

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위해’, ‘한기원 사역을 위해’ 특별기도했고, 한기원 김성진 경경회장이 축도했다.

한은수 감독은 설교를 통해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고, 그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이제라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으며, 어디에서나 담대하고, 생사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2부 3·1절 기념행사는 한기원 문세광 대표회장의 감사 인사, 제암리교회 강신범 원로목사의 교회 소개, 한은수 총재의 감사패 전달, 한기원 김영백 경경회장과 이상모 명예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삼창으로 진행됐으며, 만찬을 위해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 송용필 대표회장이 기도했다.

송경호 기자



본당을 가득 메운 청년과 청소년들. ©라이즈업 제공

“새 학기 앞둔 다음 세대...예배와 기도로 준비”

1천여 명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라이즈업 워십 개최

라이즈업무브먼트(대표 이동현 목사)가 2월 라이즈업 워십을 지난 달 27일 여의도순복음강남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집회는 새 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연합으로, 1천 명 이상의 다음 세대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라이즈업워십밴드를 중심으로

한 청년 스타프들이 4주간 준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 새벽 서울 강남역에 모여 기도했으며, 오전과 오후에는 서울시내 모든 교회들을 방문해 집회를 소개하면서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받았다.

이날 찬양을 인도한 라이즈업워십 밴드 리더 이동호 선교사는 “중·고 등·대학생들은 학교에 나가 하나

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캠퍼스와 학교 현장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기도회 후에는 이동호 선교사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대웅 기자

“일어나라 한국이여”

제26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열려

제26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가 “일어나라, 한국이여! 민족화합으로!”란 주제로 1일 오전 삼성제일교회(담임 윤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윤성원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에서는 주대준 장로(한국직장선교연합회)가 대표기도를 하고, 마희자 권사(한국해비타트)가 성경봉독을 한 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마라에서 엘림으로”(출15:22-27)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선희 장로(C-LAMP)의 인도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되게 하소서” “다문화 및 탈북자 인권 보호,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 안정을 위하

여” “민족화합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초일류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다문화 성도들과 함께 이인수 장로(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의 인도로 만세삼창을 외쳤으며, 예배는 박만희 사령관(구세군)의 축도로 모두 마무리 됐다.

한편 예배 후 이어진 특별 세미나에서는 김명규 장로(국가조찬기도회)가 “나라의 발전은 3·1운동 정신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전했으며, 정근모 장로(민족화합기도 후원회)가 ‘민족화합주간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수민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 | | | |
|---|--|---|---|
|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기독교대학(AB), 목회학사(M.Div), 신학박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131407-456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ceuimaster@gmail.com</p> |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
|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집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
|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전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 ©wiki

“수간(獸姦) 문제 현실로 나타나”

獨 헌법재판소… 수간 위헌심판청구건 각하

위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독일 헌법재판소가 한 남성과 여성이 동물과의 성관계, 즉 수간(獸姦)을 금지한 법률 조항이 성행위에 관한 자기 결정권(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에 어긋난다며 소를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개인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F씨(Mr. F)”와 “S씨(Mrs. S)”라고 밝힌 원고들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에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내렸으며, 이에 “동물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강요 하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英 대학원생, 동성에 반대로 퇴학당해”

비공개 SNS에서 동성애 반대…기독교인의 사회 진출에 장애된다며 항소



펠릭스 엔골

결혼한 기독교인 학생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퇴학당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영국 셰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과정에 2년째 재학 중인 펠릭스 엔골(Felix Ngole·38)은 최근 학교 측에게서 퇴학 통보를 받았다. 그는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하다.

엔골은 최근 자신의 비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 글은 한 교수의 눈에 띄었고, 엔골은 “사회과학부 학생평가위원회의 청문회 결정에 따라 교수 과정 프로그램을 계속 이수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이 학교 학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위원회는 그가 일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가 될 사람으로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그에게 “당신의 행동은 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당신의 학생 기록과 도서관 출입증 및 학교 컴퓨터 계정도 삭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엔골은 학교 측의 이 같은 결정에 항소를 진행 중이며,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도움을 얻고 있다. 그는 “이런 결정은 기독교인의 사회 진출에 대한 심각한 장애 요인을 만들었고, ‘기독교적 신념에 대한 비밀 정책’과 같다”며 고 뒤틀었다.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침례식”

英배리섬에서… 다수의 무슬림 난민들에게 침례식을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다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영국 배리섬, 트레지가빌(redegaville Baptist) 침례교회가 행한 이 특별한 침례식은 후보자와 장소 등 모든 면에서 화제가 됐다. 카디프 시의 중심가에 위치한 트레지가빌 침례교회는 배리 섬 리조트, 2월 추운 바다에서 청년 40명에게 침례를 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라고 한다.

침례 타임즈(Baptist Times)에 따르면, 세례식은 한 달이 채 안되어 두 번째 행하는 것으로 트레지가빌 필립 리스(Phylip Rees) 목사가 세례식을 주관하며 교회의 리더들이 짝을 지어 침례를 행했다. 침례 후보자들은 필립 목사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후보자들의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 지지자들은 해변에서 물에 나오는 이들에게 뜨거운 음료를 제공했으며, 일부 참관자들은 이 세례식의 의미를 묻기도 했다.

리 목사는 “새롭게 회심한 이들이 시내 중심을 복음화 할 것으로 예상하며, 침례식의 증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꾸준히 인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리스 목사는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를 통해 “야외 침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난민캠프 안의 한 교회. ©오픈도어선교회

“나이지리아,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 증가” 오픈도어, 보고서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관심 호소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500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13,000여 교회가 불타고 130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인근 국가로 피신한 상태.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양산되고, 현재 기독교의 모습은 실제 멸종되거나 점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무슬림과 기독교인 간의 사회적 공존도 깨져 버렸다.

보고서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상호 신뢰가 사라지고, 점점 별도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인해 나이지리아 북부의 기독교인들은 모두 고향으로 떠났으며, 대중적인 삶을 살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희망의 여지도 남겼다. 교인들이 폭력과 박해로 떠나가고 있지만,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도피하지 않기로 한 이들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북부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예수님이 나오는 꿈을 꾸고 이 같이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료 무슬림들에게 살해당하거나 압박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교회 정책 결정자들, 나이지리아 정부 관리들, 국제단체들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을 인식하고 힘을 합쳐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진 기자

“인니 정신의학회, 동성에 ‘정신장애’로 분류”

성소수자 대한 편견 아닌… 방치 되면 사회적으로 용인 될까 우려

인도네시아 정신의학회(Indonesian Psychiatrists Association)가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을 ‘정신장애자’로 분류했다.

는다. 우리에게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가치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앞서 리아미자르드 리야쿠두 국방부 장관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국가적 위험”으로 규정된 뒤 성소수자 웹사이트가 폐쇄되고 동성애자들에게 우호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시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또 주수프 칼라 부통령은 유엔개발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 내 성소수자 프로그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 인권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이를 성소수자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캠페인은 1973년 미국 정신의학회 정신허란 목록에서 동성애가 삭제되도록 운동을 주도한 단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개종 무슬림 의사…가정교회 50개 세워”

무슬림 의사가 암이 낫는 체험을 한 후 기독교로 개종해 50개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현신된 무슬림이었던 산제이는, 현재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다.

그는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는 모든 이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개종 이후 산제이는 수백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으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위해 50개의 가정교회를 개척했다.

O.C./앨버틴 지역

CMF선교회... 김철민 장로... NEXT 사랑의교회... 김일영 담임목사

UBM교회... 앤드류 김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담임목사

남가주 벤엘 교회...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오병익 담임목사... 늘워한인교회... 허규암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안향훈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김일권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고현종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이서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김한오 담임목사...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이동준 담임목사

엘바인 온누리교회... 권혁민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홍성준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교회... 박경호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홍성준 담임목사

예진교회... 김민재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홍성준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주혁모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최혁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임경남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임경남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조원재 담임목사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 | |
|-------|--------------|-------------------------|
| 세크라멘토 | 916.363.2378 | Smile Home Shopping |
| 하와이 | 808.947.8086 | Herb Land |
| 달라스 | 972.620.2900 | Royal Health Department |
| 시애틀 | 206.229.5466 |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日 '베를린의 기적' 속의 韓國人 김용식 장로



베를린 올림픽 일본대표 선수단. (뒷줄 맨 오른쪽 선수) 김용식 장로(1910-1985). © '베를린의 기적(ベルリンの奇跡-日本サッカー爆きの一瞬の足跡, 다케노우치 코스케 제공)

베를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1936년 8월1일.

히틀러 정권이 아리아 민족의 위신을 걸고 개최한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는 인지도도 기술도 낮았던 일본 축구팀이 참가했는데, 하필이면 그 첫 상대가 강호 스웨덴팀이었다. 우승후보라고 평가받던 팀과 시합을 하게 된 약체 일본팀의 승리란 기대할 수 없던 터라 일본의 신문기자들조차 취재를 단념하고 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정도였다. 하지만 3-2의 역전승을 거두며 소위 '베를린의 기적'이라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 축구의 대부라 불리며 주전 선수로 활약한 김용식(金容植, 1910-1985)장로의 투혼이 있었으며, 그의 투지력은 팀 전체에 강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베를린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이 있던 1935년 당시, 전일본종합축구 선수권 대회 겸 올림픽 파견 선발전, 메이지진구 대회에서 경성축구단이 우승할 정도로 조선의 축구 실력은 아시아 정상에 올라 있었으나 민족적 차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던 당시, 조선축구협회장 여운형의 민족 차별 시정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구협회는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실력의 축구 천재라 불린 김영근(金永根)과 김용식 장로 두 사람만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김영근은 경성축구단이 「우승한 조선 팀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우수한 플레이어는 겨우 김영근, 김용식 등 2-3명 뿐」(일본의 『제11회 올림픽 대회 보고서』)이라는 최강팀에 대한 비하에 불만을 표하고, 중국 텐진에 평양대표팀원으로 원정을 가야한다며 올림픽 대표팀 합숙을 사퇴했다.

한편, 김 장로는 육상경기,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도 우승하는 등 끊임

없는 노력으로 명성을 날렸고, 자신의 축구를 통한 세계적 플레이를 보이며 베를린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요 멤버로 활약하였다.

최종 대표를 정하던 1936년 4월, 와세다대학생 10명, 도쿄대 3명, 게이오대 1명, 문리대 1명이라는 관동 지역의 대학생 15명에 조선 보성전문학교 김 장로가 출전 대표선수로 확정되었다. 그렇기에 김 장로의 어깨에는 개인의 축구 실력은 물론, 일본팀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 조선인 축구선수로서의 민족적 사명감도 실려 있었다. 김 장로의 불굴의 투지에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은 물론, 목사 아버지를 둔 가정적 환경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용식 장로는 1910년 7월, 황해도 신천에서 김익두 목사의 3남1녀의 셋째로 태어났다. 당시 일본은 신사참배를 통한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를 강요하였고, 김익두 목사는 일본의 조선인공 참배를 거부하다 1925년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문 등을 받으며 옥살이를 반복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항일 의식의 기독교인이었던 김 목사가 서울로 부임하게 되자, 김 장로는 조선 최강의 축구실력을 떨치던 경신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축구를 하게 된다. 하지만 1929년 11월에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에 분노한 광주학생운동의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경신중학교에서도 김 장로와 김영근, 채금석 등의 축구부 선수들 중심으로 항일 데모가 전개되면서 경찰에 지명수배를 받게 된다. 그 결과, 김 장로와 김영근, 채금석, 김성태 등의 축구부 10명이 퇴학처분을 받고 명문 경신중학교 축구부는 해체하기에 이른다. 김 장로는 퇴학 후, 1930년 당시 광주학생운동 관계로 퇴학된 조선인 학생들을 대거로 받아들

었던 일본 교토 중심가의 료우요우중학교(현재의 료우요우 고등학교 전신)에 2개월간 다닌다.

이 학교에는 당시 약 100여 명에 가까운 퇴학생들을 받아들였는데, '동심초', '산유화' 등의 작곡가이자 서울대 음대 교수를 지낸 요석 김성태 역시 경신중학교 축구부 멤버로 항일 데모에 참가했다 퇴학을 당하여 료우요우중학교에서 졸업을 하였고, 소설가 안수길도 경신학교서 만세운동으로 퇴학을 당한 뒤 료우요우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김 장로의 운동 선수로서의 투지력과 노력의 배경에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서, 압제를 행행하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지배정책에 대한 강한 저항심은 물론, 목사 아버지에 게서 물려받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민족애가 그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음은 그의 발자취에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한 기독교 정신이 그를 일본 대표팀으로 뛰게했고, 비록 승리는 Nippon으로 표기되었으나 나라 잃은 약소 민족의 존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베를린의 기적'에 헌신을 다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리라.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스웨덴전 및 이탈리아 대표전 2시합의 주전 멤버로 활약하였고, 베를린 올림픽 후에도 일본 대표로서 축구실력을 발휘하였던 김 장로는 해방 뒤, 1948년의 런던 올림픽 한국대표 선수 겸 코치로 출전하였으며, 1952년 10월의 고려대 OB팀에 참가한 시합을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아버지 목사로부터 물려받은 김 장로의 하나님 사랑은 민족애로 승화되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3·1절을 맞아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돌아 보게 한다.

[자료제공: 도쿄가쿠에이대학 이수경 교수]



제97주년 3·1절 기념 및故 도이 류이치 목사 국회 추모예배가 거행되고 있다.

日의 양심, 故 도이 류이치 목사의 신앙

제97주년 3·1절 기념 및 고인 국회 추모예배 거행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97주년 3·1절 기념 및 故 도이 류이치 목사 국회 추모예배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월 22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소천한 故 도이 류이치 목사는 김영진 전 의원과 함께 한일기독교의원맹 창설을 주도했고,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일본 기독교인 의원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 일본의 만행과 과오에 대해 고개 숙여 참회했던 인물이다.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총재)가 사회를 맡은 예배는 이재창 목사(경기총 전 회장)의 개회기도, 장현일 목사(한국기독교공정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의 성경봉독, 조일래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의 설교, 소강석 목사의 추모 메시지, 김영진 장로(한일기독교의원맹 대표회장)의 인사말, 추모기도 및 추모사, 평화의 메달 추서, 추모의 노래, 헌화, 유족 대표 인사, 김원일 목사(신상교회 담임)의 축도로 드렸다.

설교한 조일래 목사는 "일본과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협력해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故 도이 류이치 목사님과 같은 분이 많이 나타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되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고인을 추모하며 "그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을 다해 한일 간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꽃씨를 뿌렸고, 끊임없이 일본을 대신해 한국에 사회의 절을 했다"면서 "그는 이제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양심, 신앙은 여전히 현재단을 오가며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를 이어 일본에서 제2, 제3의 도이 류이치가 나오길 기도하고,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장로는 "소천 후 처음 맞는 3·1절, 故 도이 류이치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겨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카지마 슈이치 목사가 일본 교계를 대표해 추모사를 전했다. 특히 그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껴 오신 한국 국민들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본의 큰 죄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여러분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故 도이 류이치 목사님을 이어 양국의 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을 대표해 인사한 고인의 동생 도이 게이치 씨는 "생전 형님께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은혜와 우정, 신뢰에 감사드립니다"며 "한일 양국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어가야 할 것이다. 서로가 우정과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故도이 류이치 목사

김진영 기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홀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홀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홀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홀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홀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용에 구비되어 있으나 행사용품은 양방향에서 더욱 다양한 종류와 양에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تون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특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I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불임증 (자궁후,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서울메디칼 그룹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0% APR & No Payments For 90 Day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301 East 23rd St. Carson 9074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3·1절 특별기고

3·1운동의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 이어받자

통합된 선진 민주 사회 실현 하고 한반도 자유 통일 이루자.

올 해는 기미년 3월 1일 우리 겨레가 일제의 탄압과 포악한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운동을 벌인 지 97년이 된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서울시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통고서를 조선총독부에 보내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모두 일본 경찰에 스스로 체포되었다. 학생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시내를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 운동은 거의 석 달 동안 전국 도시와 농촌으로 퍼져갔고 일본, 연해주, 및 미국 등 해외에서도 1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운동 및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의 독립운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한국인의 자유, 평등, 존엄성 및 자주권 등의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민족적 의지를 세계에 천명하고 아시아 공영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모태가 되었고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을 이루는 정신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 오늘에 되살리는 사명을 갖고 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살림을 꾸꾸는나비행동은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한 사람으로서 누리는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

3·1운동은 자유, 평등, 사랑, 자주 등과 같은 사람의 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다.

일제는 한국 사람이 언론·출판·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갖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가혹한 신체적 처벌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민족 의지가 저항 운동으로 나타났다.

광복 7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자유 민주 사회로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공권력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아직도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어린애들이 학대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과잉 민주주의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남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3·1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랑과 자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2. 경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

3·1운동은 일제의 경제적 수탈에 저항하는 농민·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운동이었다.

일제는 우리의 민족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갖가지 형태로 경제적 약탈을 자행했다. 그 결과 노동자 농민의 생활이 크게 악화되었다.

3·1운동은 노동자파업·납세거부·물산장려·국산품애용 등의 형태로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운동이었다. 이것은 민족기업을 건설하려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개인과 기업의 공정치 못한 경제 행위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물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3. 자주 독립을 실현해야 한다.

3·1운동의 기본 사상은 자주 독립이다.

독립선언서, 일본정부에 보낸 통고문,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 등은 민족의 자주 독립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1운동은 강렬한 민족의식과 독립투쟁정신을 불러일으켰고, 교육의 진흥, 신문에



김영한 박사
살림나비 대표

운동·산업운동을 활성화하여 민족 자립의 기초를 다지게 하였다. 이것은 상해 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강령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대외의존도가 높다. 특히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위안부 문제의 책임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중국과 맺은 군사동맹을 맺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의 비대칭적 무기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 대한한국은 이러한 대외의존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 특히 자주 국방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아베정권에게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는 사회를 이뤄야 한다.

3·1운동은 처음에 몇 개의 종교 단체와 교육기관이 추진하였으나 나중에는 전 민족적이고 일원화된 운동을 벌이기 위해 천도교, 기독교, 불교, 및 유럽 등의 교단과 기관이 총망라되어 서로 소통하고 통합하였다.

그 결과 지식인과 학생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참여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념적 좌우, 노사, 빈부, 세대, 계층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극심하다. 이것 때문에 사회 계층 사이에 위화감이 깊어가고 사회 기반

이 흔들리게 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한적인 갈등을 넘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연합해야 한다.

5.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평화로운 인간 존엄성의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일제는 군사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뒤 사회 전 분야에서 억압과 수탈을 일삼는 폭력통치를 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투옥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무력통치에 3·1운동은 질서 있는 평화적인 만세운동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였다.

슬픈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폭력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폭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것은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존엄성은 자유, 평등, 정의 및 공동체성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폭력은 사람이 갖는 존엄성과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공동체성을 위협한다. 폭력은 사람다운 삶과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3·1운동의 평화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극복해야 하겠다.

6. 남북통일을 이루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한 겨레가 남북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지 이미 70년이 넘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의 참상까지 겪은 것도 모자라 북한은 끊임없이 대량 살상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며 무력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남한은 자위력을 높이기 위해 군사력 증강에 천문학적 돈

을 쏟아 붓고 있다. 이렇게 남북이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까지 위협을 받는다. 남북의 고도의 긴장 국면은 한국, 미국 및 일본이 그리고 북한, 중국 및 러시아가 각기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면 어떤 형태든지 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와 관계된 세계 여러 나라가 전쟁에 개입된다. 이제부터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선군정치를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굳건히 쌓아가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7. 한국교회는 사회가 통합되도록 적극적으로 섬겨야 한다.

3·1운동 때 기독교인은 겨레의 자주독립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종파와 적극 소통하고 연합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계층 간의 극한적인 질서와 반목 및 대립의 문제를 푸는 일에 앞장 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 겨레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드높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독립 국가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실제적인 길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사회에 연합하는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가난하며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와 삶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예수, 내게 묻다

김지철 | 두란노 | 224쪽

모든 질문의 답인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지금은 '나'를 향해 묻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물음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물음을 들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성도를 일깨워 준다. 또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 신앙과 삶에 대해 학습하고 진정한 신앙의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한다.



탕자교회

제라드 윌슨 | 생명의말씀사 | 304쪽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중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역에서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람들의 취향과 관심에 맞추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역에 집중할 뿐이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평가하고 제안한다.



토박이 신앙산맥2

전택부 | 홍성사 | 30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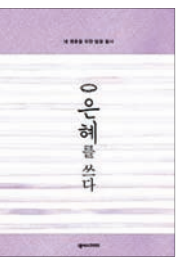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고 올곧은 삶과 신앙의 생명력의 전택부 선생에게 다시 듣는 '토박이 정신'. 왜 토박이 신앙인가? 토박이 선비 정신 없이는 올바른 예수쟁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 민족의 '한(韓)' 정신의 실체와 핵심을 분석·정리하면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는 것들이 잊히고 왜곡되는 현실을 질타하며, 내재된 토박이 정신을 거울삼아 한국 교회의 맹성(猛省)을 촉구하고 있다.



은혜를 쓰다

넥서스CROSS 성경팀 | 넥서스CROSS | 244쪽

은혜를 쓰다는 것은 은혜를 기록하고 입을 수도 있지만 은혜를 입는다고 입을 수도 있다. 또 흘려보낸다는 뜻도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한 아주 가까이 계신다. 내가 인지하든 그러지 못하든, 느끼든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피며 따라가 보라. 말씀에 머물러 보라. 충분히 머물러 보라. 이 책이 말씀에 머물도록 도와줄 것이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속 시원한 깨달음을 마셔라”

신앙의 갈증을 푸는 62가지 지혜

“목마른 이에게 건네는 열두 모금 생수”

“예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목마를 텐데... 외로울 텐데... 복음이 아니면 그 목마름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으로 새벽마다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열두 줄의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답답함에 명쾌하게 “답” 하며 속 시원한 깨달음을 마실 수

있는 신앙의 갈증을 푸는 62가지 지혜를 담고 있다.

서로가 진리라 우기며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들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실 것인가? 우리의 갈증을 풀 수 있는 것은 술이나 탄산음료가 아니다. 오직 ‘생수’만이 해갈의 기쁨을 선사한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새롭게 한다.

잘나가던 한 언론인이 주님을 만나 목사가 된 후 발견한 것은 ‘성도들의 진리를 향한 갈증’이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도. 이미 가나안 성도가 되어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서성거리는 성도들. ‘목마를 텐



열두 모금 생수
조정민
두란노 | 276쪽

데... 외로울 텐데... 복음이 아니면 그 목마름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그 생각으로 매일 새벽 페이스북에 12줄의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2만 5천 팔로워가 이 생수를 마셨고, 해갈의 기쁨을 누렸으며, 다시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켰다. 《열두 모금 생수》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나 SNS에서 SNS로 퍼 나르던 주옥 같은 저자의 묵상 글을 모았다. (생명의 삶) 을 기반으로 한 저자의 묵상은 종일 눈과 귀를 피곤하게 하던 수많은 메시지 틈새에서 빛이 되어 잠든 영혼을 깨웠다. 빛은 어둠이 있기에 더욱 빛난다. 지금 답 없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 진리를 가장한 세상의 넘치는 해법들에 진력하지는 않았는가. 《열두 모금 생수》를 통해 진정한

한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 바란다. 저자 조정민은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던 저자는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다. 목회자로, 또 선교 방송국 사장으로 일하다 2013년부터 새로운 공동체인 베이직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는 술한 종교적 방향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트위터 광장, 페이스북 우물가에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영인 기자

히브리어·헬라이어

원문 번역 주석 성경 (신약)

번역·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히브리어·헬라이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나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구약 출간예정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구(월간목회) 기획 2,106면
이행규(금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신약 신간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예수 처형 앞장섰던 로마군의 시선으로 본 ‘부활’”

부활절 앞둔 개봉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의 작품



영화 '부활' 중 한 장면. ©영화사 제공

피로 물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로마군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3일 뒤, 예수의 시신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예수가 로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 부활했다는 희망의 소리가 점차 거세진다.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로마군의 수장 클라비우스(조셉 파인즈)는 보좌관 루시우스(톰 펠튼)와 함께 사라진 예수의 3일간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십자가 기적'의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기독교 서사 대작 영화 <부활>이, 부활절을 앞둔 3월 17일 한국 관객들에게 찾아 간다.

영화 <부활>은 국내에서만 25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엄한 스케일의 명작으로 영화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위터 월드>의 케빈 레이놀즈 감독도 참여해 한층 더 웅장하고 강력한 드라마를 완성시켰다.

영화 <부활>과 기존 기독교 작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로마군'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기적을 그려냈다는 점이다. 영화는 예수 처형에 앞장섰던 클라비우스

와 루시우스가 사라진 예수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케빈 레이놀즈 감독은 “기존의 작품들과는 색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다. 마치 탐정 스릴러와 같은 느낌으로 사건에 다가서며, 관객들이 주인공과 함께 그의 행적을 따라가게 만들고 싶었다”고 차별화된 영화 구성 방식을 강조했다.

영화의 제작자 마이크 리델은 2008

영화는 예수의 기적적인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오직 자신과 전쟁의 신 외에는 그 무엇도 믿지 않는 클라비우스의 시선을 따라간다. 정치적·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단지 군인으로 서 명령에 따라 예수의 시신을 찾아 나서는 클라비우스의 모습은,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뿐 아니라 비종교인들 모두에게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영화 '부활' 중 한 장면. ©영화사 제공

년부터 작품 구상에 들어갔고, “관객들에게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고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 줘야 한다”는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생각에 동의하여 이 영화를 탄생시켰다.

클라비우스 역의 조셉 파인즈는 “성경의 이야기와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가 총총히 엮인 서사의 구조가 흥미로웠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에 눈을 땔 수 없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의 부활은, 모든 죽음의 미스터리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배급사 측은 영화에 대해 “기존의 종교 영화와는 차별화된 시선으로 접근해 기독교인들에게는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애 기자

“종교통합 주장 WCC”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나?

선교신학연구소(Institute for Mission and Theology·IMT)가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합운동 연구」를 출간했다.

이 책은 연구소 신학선교연구부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한 논문집의 성격이며, 「WCC 선교신학 연구」에 이은 IMT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책을 편집한 IMT 소장 이동주 박사는 머리말에서 “2013년 10월 개최된 ‘제10차 WCC 부산총회’는 유달리 개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대회 기간 동안 연일 반대 시위가 가라앉지 않았고, 28개 신학대 총장들이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동주 박사는 “복음주의 입장에서 파악한 WCC 신학의 문제점은 성경적 신앙에서 벗어난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수용, 용공 등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WCC는 종교통합 운동 내지 부산총회에서 선언한 ‘우주연합운동’ 등을 통해 로마가톨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함으로써, 적그리스도 시대를 사는 복음적 교회에 고통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동주 박사는 책에서 ‘WCC 부산총회와 종교다원주의’, ‘가톨릭 교리의 몇 가지 독특성에 관한 성경적 고찰’, ‘WCC의 교회관과 선교관: WCC의 Missio Dei 신학을 중심으로’ 등 세 편의 글을 썼으며, 이 내용들은 본지에도 일부 소개된 바 있다.

이 박사는 “WCC는 잃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시도는 없고, 성경적·전통적 신앙고백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적·자기기만적 이중고백에 취해 있다”고 했다.

또 “WCC는 성령의 감격이나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없이 오직 이웃과의 평화와 돌봄의 행위들을 촉구하고, 오직 인류와의 ‘가시적 연합’을 위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교들을 가시적 통합체로 더 크고 광범위하게 혼합하면서 뭉쳐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20세기 후반부터 WCC와 가톨릭은 기독교 밖의 정치·경제 통합운동과 병행하여 세계연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모든 종교와의 일치를 포함한 ‘우주연합’의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WCC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갖고 있지만 믿음



WCC와 가톨릭의 종교연합... 이동주 CLC 1304쪽

이나 행위에 대해 아무 신조에도 구속받지 않으므로 니케아 신조와 종교다원주의를 동시에 고백할 수 있고, 1970년대 WCC 대화 프로그램 책임자들처럼 기독교·성령론·구원론·교회론을 늘리고 확장시켜 불신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의 수위권부터 화해, 죽은 자들과의 교체신앙 등 특수한 전통을 결코 버리지 않으려 하므로, 결과적으로 교리 수호에 관심이 없는 WCC가 가톨릭에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WCC 대회에 적극 참석한 한국교회에 대해선 “일부 복음주의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WCC 단체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상징적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WCC의 거대한 후원자들이 되면서 그들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무비판적으로 WCC의 신앙과 신학적 흐름을 따를 것”이라며 “WCC 부산총회 이후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세속적 연합운동과 성경적 연합운동으로 분리될 것”이라는 말로 현재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난맥상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 외에 WCC 총회에 직접 참가한 유경석 목사(베데스다교회)가 ‘WCC 부산총회 주제인 <생명>에 관한 고찰’과 ‘WCC 교회일치운동과 성경적 교회연합운동’, 박영호 박사(전 한국성서대 교수)가 ‘WCC 부산총회에 대한 신학적 평가’, 권혁찬 목사(전 필리핀 선교사)가 ‘WCC 부산총회의 일치운동이 세계 선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각 집필했다.

특히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전 독일 튀빙겐대학교 교수)의 논문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세 주요 교단 기독교인들의 공동 성명’을 마지막으로 읽고 있다.

이대웅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젊게 하는 세계 에미나99 꼭 사용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 대신 친환경, 무공해, 다용도 “에미나99”세제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시 유연제 필요없고, 정전기 방지되고, 보송보송한 건강에 좋은 세탁물이 됨
- 고무장갑 없이 설거지 하면 피가 더 잘 통하고, 기름기 잘 지워짐
- 청소(화장실 변기, 욕조, 마루, 가구, 가전제품, 식당, 후드, 세차) 시에 화학물질이 없어지고, 이산화탄소를 없애 공기를 정화시킴
- 애완동물 목욕, 여행 수질 유지와 뿌리면 집안의 모든 냄새를 없앴
- 농작물에 적은량을 뿌려주면 진딧물과 병충해가 없고 수확이 3배 이상이 되며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음(꽃에 뿌리면 빨리 시들지 않음)
- 양치질,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

항산화 세제 “에미나 99”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친환경 무공해 세제로 건강을 지킵니다. (아토피, 피부염, 상처, 가려움증)
2. 지구를 정화시킵니다. (이산화 탄소, 다이옥신 제거, 방사선 감마선 20% 감소)
3. 세제 비용을 1/3정도 줄여 경제적입니다. (4인 가정 화학세제 년 약 \$200.00 저축함)
4. 물을 절약합니다. (세탁 시 한번만 헹구면 건강에 좋고, 사용한 물은 식물에 거름이 되고, 하수구 정화됨)

자매품: 물돌, 밥돌, 튀김돌, 생생팩, 신비의물통, 세수비누, 샴푸, 로션, 크림은 모두 항산화 용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산화를 막아주는 세계 유일의 특유한 제품입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 (로테오 켈러리아)

인터넷 “약손 나손” 검색 **Tel:323)316-6815**

How Can the Church Bring Back the 'Dones' and 'Nones'? Pastoral, Academic, Lay Leaders Weigh In

BY RACHAEL LEE

A group of some 80 Christian pastoral, academic, and lay leaders gathered at Young Nak Celebration Church's Jefferson campus on Saturday to discuss how the church could bring back to church the 'dones' and the 'nones' -- those who either left the church, or those who say they don't affiliate themselves with any religion.

They gathered for the Institute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s 7th Symposium, titled, "Christianity Next: The Dones and the Nones?" where Richard Mouw, the president emeritu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gave a keynote address, six speakers were featured for a panel, and attendees split into smaller groups to discuss the issues more in detail.

A running theme throughout the symposium was that those 'nones' and 'dones' must not be condemned, but understood, and that the church as a whole must provide a space for those who have questions about the faith to be able to discuss or explore those questions in a safe environment.

Indeed, some shared during the small group discussions of how they felt they were unable to come to people in the church with their doubts or questions.

"I wanted to talk about racial and social justice issues, but I didn't feel comfortable to do so at my church," shared one young woman in her 20s at one of the breakout groups.

Irene Cho, the program manager for the Fuller Youth Institute (FYI), said she was even fired from her church for allowing certain behaviors within her youth group. For example, many of her youth



Panelists shared their thoughts at ISAAC's 7th Symposium. (Photo courtesy of ISAAC)



About 80 pastors, academics, and lay leaders attended the recent ISAAC symposium.

whom she was pastoring at the time had struggles with smoking cigarettes. She had expressed to them that she is against them smoking and encouraged them to quit smoking. But when the youth group went on a retreat, she told them to let her know if they felt they could not win the urge to smoke at the retreat site, and that she would drive them out to a location where they could smoke and come back.

"Isn't it better for them to know that I am walking with them in their struggles, rather than giving them a black and white, yes or no,

structure?" Cho asked.

"When I talked with some of them later on, they weren't going to church anymore, but they would tell me, 'If I did go back to church, I wish it was like how our youth group was with you,'" she recalled.

Kay Higuera Smith touched upon the impact of leaders in the church, and the weight of their position in terms of leading the body.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and even sometimes rebuked when necessary, she said.

One middle-aged woman in

Smith's breakout group shared openly about an experience she had in which she was kicked out of her church when she was 23. She said she hadn't felt ready to commit to another church for five years after that experience, due to the betrayal and hurt that she felt.

"When I was 28, I finally felt ready to recommit to a body," she explained, "because I wanted to obey God's word to be a part of the body. I learned not to trust my pastors, but to love them."

"There is a tendency to feel it's sinful to criticize the pastor," Smith said in response, "but they are sometimes the most responsible and must be held accountable when they have done wrong."

Steve Choi also discussed the importance of having strong and committed leaders in the home and in the church. If there could be a strategy on how to revitalize or reimagine the church, he said he would focus on investing in the family and the church leaders.

Parents spend "18 years disciplining the child," Choi said. "Churches and other people may come and go, but parents will always be there."

Yet even within the church, there is a need for committed leadership, he added. "Ministry is tough. It is taxing," Choi said. But if leaders leave the church after short stints, it discredits the message that they preach to the congregation, he explained.

"We need to invest in raising up good leaders in the church -- not just book smart or theologically smart. But really good leaders who are men and women of humility, integrity, who are in it for the long haul."

Korean World Missions Conference to Take Place in Los Angele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Known as the 'Olympics' of Korean missionaries all over the world,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WMC) will be taking place in Los Angeles for the first time in its almost 30-year history. KWMC, which takes place once every four years, had always taken place at Wheaton College near Chicago since its beginnings in 1988, but this year the conference location has moved to Los Angeles. The conference dates, which were usually in July, have also been pushed earlier to June.

Reverend Suk-Hee Ko, who i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New York headquarters of 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came to Los Angeles on March 1, about three months before the conference, to introduce the conference and encourage Korean churches to support and participate in the conference.

"We decided to move the conference location from the Midwest to the Southwest due to requests from our missionaries," explained Ko at the press conference on Tuesday.

"Our lineup of speakers are experts in various different topics," Ko continued, "and I expect that everyone who attends will be challenged."

"I believe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missionaries to be recharged, and for local church pastors to rediscover their calling in missions," said Reverend Paul K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and the lead organizer of the conference.

Organizers predict that some 1,200 to 1,500 missionaries will attend this year's conference along with some 4,000 local church pastors and congregants.

As a result, the organizers hope that local church pastors and leaders would be challenged once again to participate in world missions. This year's lineup of speakers include Loren Cunningham, the founder of Youth With A Mission (YWAM); David Ross, the president of YWAM's Antio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Ministries; Paul Eshleman, the vice president of coverage at Campus Crusade for Christ; Todd Johnson, the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and Michael Oh, the executive director and CEO of the Lausanne Movement, among others. Attendees will be able to listen to and meet with experts on world missions through 200 different seminars and fora at the conference.

The conference will be divided into separate Korean and English tracks, and will take place from June 6 to 10 at Azusa Pacific University. A children's missions conference will be taking place simultaneously as well, so organizers encouraged young couples to attend with their children.

A separate conference for members of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and another conference for children of missionaries will be taking place from June 3 to 6.

110 Years After Azusa St. Revival, New Hopes Arise for 'Azusa Now'

BY RACHAEL LEE

The Call is planning for an all-day revival gathering at the Los Angeles Memorial Coliseum with hopes for a revival like that of the Azusa Street Revival that took place in 1906, and Korean Christians have been invited to kick off the gathering.

"We're not looking for an event," said Lou Engle, the founder of The Call. "We want a breakthrough."

The Call has hosted numerous gatherings of fasting and prayer over the years for youth and young adults, including one that took place in Washington, D.C. that gathered some 400,000 people in the year 2000.

The upcoming gathering, called 'Azusa Now,' is set to take place on April 9 from 7:30 AM to 10 PM, and has a slight "shift" in focus, according to Engle. Whereas previous gatherings hosted by The Call focused on prayer and fasting, the upcoming gathering will also focus on "the preaching of the gospel, and signs and wonders," Engle said.

Yet another aspect that sets this upcoming gathering apart from the previous gatherings hosted by The Call is its intentional focus on gathering an ethnically diverse group.

Just as the Azusa Street Revival in the early 20th century brought togethe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s, Engle said, unity within the church across races and denominations must occur for revival today.

"Somewhere between 1909-1913, William Seymour prophesied that in 100 years another wave of revival would come that far eclipsed what took place at the original Azusa Street Revival," said Azusa Now organizers in a statement.

"We are asking the Holy Spirit to truly and deeply unite Anglo, African American, Asian, Hispanic, Native American -- every tribe and tongue -- in a holy, historic convocation where once again, surrounded by crisis and division in our land, it could truly be said: 'The blood of Jesus washed away the color line at Azusa!'" organizers

continue. "Only a united church can heal a divided nation!"

Various ethnic groups will be leading different segments of the upcoming gathering. Korean Christians specifically will be leading the first segment of the day in Korean from 7:30 to 8:10 AM, and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through device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day.

"Revival is not an option for us," Engle said, "and we ask that the Korean church bring its redemptive gift. Lead us in the morning with your gift."

Azusa Now organizers decided to reach out to the Korean church leaders after encountering them and seeing them pray at numerous prayer gathering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in partnership with 'Line in the Sand,' including the most recent prayer gathering that Korean church leaders hosted in November of 2015, where Engle participated as one of the speakers.

"Those who were part of the Azusa Street Revival or the Pyongyang Revival would not have known the future impact of what they were a part of," said Reverend Yu Chul



Local church pastors and organizers of 'Azusa Now' prayed together for the event.



Lou Engle, the founder of The Call, explained the vision behind 'Azusa Now.'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Peter Kim: Voting Is 'Having a Voice'

BY RACHAEL LEE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Peter Kim's journey with politics began at a young age, beginning with his internship at Congressman Ed Royce's office as a high school student. Kim also volunteered in Republican politics as a colleg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Kim previously worked for Assemblywoman Young Kim, when she was a commissioner on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AAPI) for former President George W. Bush, and during her campaign for and term on the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Kim also previously worked for La Palma City's Traffic Safety Committee, from which he was appointed to become a candidate for City Council in 2012.

Q: How did your interest in politics begin?

A: In high school, I wa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program, and I was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have government class. And I just thought, 'This is crazy. Let me just find out who my Congressman is.' And it was Ed Royce at that time. I went to his website, and I saw all of these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 just thought, 'Why does this White, male, conservative guy have so much interest for North Korean issues?' So I applied to be an intern and they accepted me as a high school student. And that's where it started.

Some members of my family are also involved in politics. Paul Song is very active in Democratic politics, and my sister, Sandra Lee, recently was elected onto the Cypress School Board. My sister's not much of a politician actually, but she's very passionate about education -- and that's the thing. Even though you may not like politics, if you are a great doctor, or attorney, or anything, you can leverage your skill sets. Whenever you're ready, you can be a part of government and use your talents in government. That's just one way you can serve the public.

Q: What's your faith background and how has it influenced your journey and your decisions?

A: I've been a Christian all my life. I know that it is God's plan, and that it wasn't an accident or coincidence that I have been able to meet various people that have helped me throughout my life.

Q: Many politically active Korean Americans tend to focus on immigration as a major issue that influences their votes. At the same time, Korean Americans who are also Christian may feel conflicted as their religious values tend to lean conservatively. How would you advise them on how to balance that dichotomy?

A: I think something that needs to be distinguished is that the Republican party is against *illegal* immigration. My parents came in the 1970s, and they are the beneficiaries of the policies of Nixon and Ford at the time. Whatever the solution is to address illegal immigration, policy-wise, there needs to be a way we need to make sure that those who follow the law are the ones who are accepted and able to

come to the U.S.

I do notice that the Korean church is very focused on social policies. Many churches have been gathering signatures to express their opposition against the transgender bathroom law in California recently. And I think it's good that the church cares about these issues and are active about what they believe is important. And ultimately, I think they should simply vote for whatever values they believe to be most important. Beyond three major issues that Christians may prioritize -- abortion, same-sex marriage, and transgender issues -- all of the issues that are being discussed, whatever is important to the church is important to everyone. We all want better jobs, and better infrastructure.

"You have to do your part in order to ... make the community stronger."

Q: Over the years that you have been politically active, do you feel that there has been progress in having better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 interests in terms of policies?

A: For me here in La Palma at least, I don't think I did anything specifically policy-wise that was just for the Korean American interests. We have done a lot of Korean American outreach, such as supporting the resolution to acknowledge Korean American Day. A Korean American church here provides their space for us and invites city employees to eat Korean food as well. We also send some of our city employees to South Korea through the Global Cooperation Society, which has an annual program where city employees in the U.S. can go to Korea. Our previous city manager had the opportunity to go, and it was her first time going to Korea, and experiencing the culture.

But on the local level, in terms of policy, everyone wants better infrastructure, stable economy, and a fiscally responsible government. We are more cognizant of reaching out to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 we're the first city to be majority Asian American. And we are working on many different things regarding education here, such as focusing efforts to help our students go to La Palma City schools. It's important to focus on ethnic needs of course, but what we want are also things that everyone wants. If we get too engrained in the ethnic interests, it separates people and divides.

However, I do think that the growth of Korean Americans in office is a representation of how muc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as grown as a whole politically. La Palma City may be small, but actually we are an important junctur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 it's sort of the front lines of political empowerment to be honest. We have representation of Korean Americans i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with Michelle Steel on the



(Photo courtesy of Peter Kim)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for the 2nd District, Young Kim as the Assemblywoman for the 65th District, and myself and Steve Hwangbo as members of La Palma City Council. Where else in the country is it that way? In that sense, I think we've made a lot of great strides.

Q: According to Pew Research Center's most recent study, Asian American voter turnout seems to still lag behind that of other ethnic groups.

A: I think that people may not vote because there is often so much to vote on, and people don't know how to vote. But now, I think it's been made so much easier to vote because of the permanent absentee ballots. The ballots and packets are all even available in Korean now. My parents get their ballots in Korean. So my argument is, there's no excuse not to vote anymore.

Every vote really counts. We've had very close elections before. Even with David Ryu (LA City Council Member), he scraped by in the primaries with a very small difference of votes. Many candidates have won by very narrow margins. If everyone votes, the political empowerment grows. You have to do your part in order to aggregate and make the community stronger.

To have a voice in the whole process, to have a seat at the table -- What is it that you want? The only way you could voice that is through voting.

Q: You are running for re-election as La Palma City Council Member. What's on your platform for this year?

A: La Palma City's needs are not unique. We're going through fiscal difficulties. Oil prices are very low. So right now we're focusing on, how can we, in the long term, be financially sustainable? In terms of other priorities, we're also focusing on infrastructure, public safety, and financial stability. We're a small city, so economies of scale are not on our side. Voters will have to determine what is a priority for them. We have to figure out, what can we do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ervice? So voters would be asked, 'Are you willing to pay more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ervice? Or are the services not important enough that you would want to pay more for them?' Our council right now is discussing these issues. And as a Council Member, I would say we've done a lot of things to reduce cost, and we have been doing everything we can.

Pastor in China Sentenced to 14 Years in Prison

Government-approved pastor was active in opposing removal of crosses

A Chinese pastor who was involved in protesting against removing the cross atop his church has been sentenced 14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corruption, swindling, and gathering people to disturb social order, according to media reports.

Bao Guohua was a government-approved pastor and had resisted the cross removal campaign in Zhejiang province, where about 1,200 crosses were removed during the past two years. His wife, Xing Wenxiang, was sentenced to 12 years for similar charges.

About 10 people from their church were also charged, but the Chinese media has not released details of their sentences. The court confiscated 600,000 renminbi (about \$92,000) each from Bao and his wife, and fined Bao with \$15,000 and about \$14,000 from his wife.

The media reported that their sentences were the most severe, which have not been imposed on any of the church leaders in China as yet.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fused to relent in taking down crosses, and

maintains that the crosses violate building codes. However, Christian activists say that authorities want to suppress Christianity in Zhejiang, which is also referred to as "China's Jerusalem."

Last year, the authorities reinforced a ban on admitting non-atheist members in the Communist Party in Zhejiang province.

As the cross removal campaign in Zhejiang started, many of the buildings were also deemed "illegal structures" and razed to the ground.

The government's crackdown on Christianity in China continues with the arrest and detention of several clergy members and lawyers defending churches and protesting against the removal of crosses.

This week, Zhang Kai, a prominent Christian lawyer who took up cases of cross removal, was compelled to confess on a local television station that he took money from China Aid director Bob Fu to defend churches in his capacity as a lawyer, and was trying to "change China's political system." Zhang was arrested a day before his

meeting with US ambassador-at-large David Saperstein in August last year.

Responding to Zhang's "confession", China Aid director Bob Fu released a statement saying, "Although China Aid is mentioned in the shameful Chinese Communist Party's official propaganda as an 'overseas force supporting Zhang Kai's legal defense work,' we will never be intimidated nor cease to continue to promote religious freedom for all in China."

In January this year, Gu Yuese, pastor of Hangzhou city's Chongyi Church, was arrested, who too had protested the removal of crosses in Zhejiang province. His wife, Zhou Lian Mei, was informed by the city police that he was detained on suspicions of swindling. Chongyi Church is the largest church in China with over 10,000 congregants, and is government-approved.

"Increasingly, we feel God's good intentions in this storm," Mei said after the incident. "It will refine every impurity in our ministry team to the greatest extent and compel us to love the Lord and people more purely."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www.cornerstonenet.com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edb.org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Los Angeles Full Gospel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laflg.com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org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org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72개월까지
 0%이자가능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Hyundai Seize the Moment Sales Event

NEW
2016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3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000 Lease Cash,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JUST ARRIVED

Get Better Deal On
2016 Hyundai
 Find Out Why!!

NEW
2015 HYUNDAI
SONATA LIMITED
 With Ultimate
 Technology Pkg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Panoramic Sunroof, Navigation System W. 8" Touch Screen
 Integrated Memory System For Driver Seat & Side Mirror & Mor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32,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5,999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500 Lease Loyalty Cash,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EQUUS SIGNATURE

Lease It For **\$3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62,45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8,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A PERFORMANCE VEHICLE WRAPPED IN LUXURY"

NEW
2015 HYUNDAI
GENESIS SEDAN 5.0L V8 Engine

Lease It For **\$299** +Tax

All In Stock With
MSRP \$52,7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4,250, Competitive Owner Coupon \$1,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It's an honor to be nominated 2015 North American Car Of The Year Finalist"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